

# 북스

Books

## 근대 세계는 바다에서 태어났다

### 문명과 바다

#### 주경철 지음

저자의 이름이 브랜드가 되는 시대다. '대항해 시대', '문화로 읽는 세계사'의 주경철(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은 국내 서양사(史) 관련 저작물의 대표선수다.



주 씨가 근대 세계사를 '바다'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한 책 '문명과 바다-바다에서 만들어진 근대'를 펴냈다.

저자는 '바다'라는 키워드를 통해 전 지구적인 문명 교류와 갈등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제한된 교류 이외에는 서로 고립돼 발전해 오던 세계 여러 문명권이 15세기 이후, 특히 콜럼버스의 항해 이후 바다를 통해 본격적으로 소통하기 시작했고, 그 소통이 진정한 세계사의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게 글의 출발이다.

저자는 기존의 서구 중심주의에서 탈피, 다양한 시각을 통해 세계사를 들여다봤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첫발을 디딘 10월 12일, 미국은 이날을 '콜럼버스의 날'로 기념한다. 그러나 아메리카의 다른 나라, 예컨대 볼리비아는 '원주민 저항의 날'로 부른다.

책은 모두 8부, 50쪽지의 글로 구성돼 있다. 1부 '아시아의 바다에서'는 인도양이 유라시아 대륙의 여러 문명권이 교류하는 중심무대였음을 이야기한다.

2부에서는 유럽이 주도한 '근대화의 세계화'는 '폭력의 세계화'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질적인 문명권 안으로 뚫고 들어갈 때는 폭력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인도에 도착한 바스코 다 가마는 적 800명의 귀와 코, 손을 잘라 이 지역 지배자에게 보내면서 카라



노예선을 타고 아메리카로 끌려간 1천만명의 노예는 근대 세계의 참혹한 비극 중 하나다. 노예 경매에 나온 여성과 아이의 모습.

이스를 해먹으라고 말했다. 포르투갈 총독들은 여자의 코를 자르고 손목을 잘랐다.

3부에서는 세계 해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최초의 프톨레타리아선원들의 세계를 다루고 있다. '남양적 의미의 마도로스'는 없다. 죽음의 공포와 질병, 저임금에 시달린 노동자 집단이 아니었다면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출발과 근대 세계 문명의 형성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한정된 공간에서 감시와 억압이 일상화된 생활을 해야 했던 선원들은 점차 출현하게 될 공장노동자의 선구였고,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작동 원리들은 이미 바다위에서 실험 중이었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해적'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다. 바르솔로뮤오 비초 휘하의 선원들이 작성한 '해적 규약'은 평등지향적인 특이한 '해적 민주주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말한다.

근대사의 비극중 하나인 '노예제도' 역시 바다가 만들어낸 산물이다. 1천만명에 가까운 아프리카인

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노예로 끌려간 일은 세계 근대사의 어두운 그림자다.

책은 그밖에 후추, 차, 치즈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들도 근대 해상 광장을 통해 전 세계가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역사적 산물임을 이야기하며 현재도 진행중인 '전염병의 세계화'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대항해 시대는 전지구적 폭력의 시대였고 가공할 파괴를 초래했지만 동시에 창조적인 대응을 낳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세계사적 흐름을 분석하는 우리식의 현명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학문적 논쟁 만큼이나 일반 교양 독자들을 위한 글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저자의 의도는 상당한 듯 보인다. 소개되는 내용들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쉽게 쓰여진 글은 책을 손에서 떼기 어렵게 만든다.

각 장마다 내용을 보강하는 사료와 기존의 정설을 반박하는 자료를 박스형식으로 덧붙이고, 생생한 도판을 실은 점도 돋보인다. <산처럼> 1만 8천5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세계적 건축물과의 대화

#### '공간에게 말을 걸다'

세계적인 건축, 그림, 영화에서 공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자칭 아웃사이더 건축가 조재현씨가 '공간에게 말을 걸다'를 통해 '공간과 내면의 대화'를 나누는, 아주 독특한 시도를 했다.



건축의 기본이 되는 공간과 형태의 구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물리적인 공간을 심리적인 공간으로 섬세하게 보여준 건축교양서다.

저자는 각 공간유형에 맞는 사례를 건축(약 700가지), 그림(30점), 영화(약 400장)에서 찾아내고, 세계적 건축물 150장을 직접 스케치했다. 책에 담은 사진만 800컷에 달한다.

<엔도프레스> 2만원 /김대성기자 bigkim@



### 비포 아담 버닝 데이라이트

#### 강철군화

잭 런던 지음·이성은 등 옮김

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사회가 마비되자 지배계급은 몇몇 주요 노동조합을 해산한 뒤 나머지 노동조합을 하

##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소시민의 투쟁

나하나 무너트리려 한다. 사람들은 노동자들의 결속을 주장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강철군화'로 상징되는 지배계급에 의해 무자비하게 탄압당했다.

한 때 대학 신입생들의 필독서였던 미국의 대표 이야기꾼 잭 런던(1876~1916년)의 '강철군화'의 내용이다.

그의 대표작들이 한꺼번에 출간됐다. 그는 19~20세기 초 미국 문화의 중심에서 있던 작가이다. 그는 대자연과 휴머니즘,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소시민의 투쟁 등을 그렸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강철군화'(광영미 옮김)와 더불어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비포 아담'(이성은 옮김)과 '버닝 데이라이트'(정주연 옮김)가 각각 출간됐다.

지난 1907년에 출간된 '비포 아담'은 그의 초기작으로, 선사시대 원시인류의 삶을 들려준다. 그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원시인류의 언어와 생활, 사랑 등을 생생하게 표현했다. 생존, 짝짓기, 놀이, 살육 등을 통해 오늘날을 비추는 이야기들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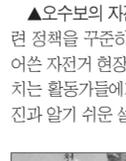
한 소년이 밤마다 고통스런 꿈을 꾸는데, 소설은 소년의 원시적인 고통을 추적한다.

<구리> 9천800원~1만2천800원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 새책



▲팬츠아, 웃을 수 있으니까=가수와 배우, 개그맨, 아나운서 등 유명 방송인 24명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문세와 손나나, 김수미, 이홍렬, 이숙영, 임백천, 이만기 등 방송인들이 꿈을 이뤄내기까지의 도전과 인생 이야기를 통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위로한다. '팬츠아' 시리즈의 마지막 책. <마음의 숲> 1만900원



▲오수보의 자전적 이야기-현장에서 보는 자전적 정책=자전적 관련 정책을 꾸준히 연구해온 오수보씨가 직접 체험하고 알기 쉽게 풀어 쓴 자전적 현장보고서. 정책 담당자나 '저탄소 녹색 성장운동'을 펼치는 활동가들에게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다. 직접 촬영한 사진과 알기 쉬운 설명을 담은 정보가 알차다. <엘비미디어> 1만8천원



▲천추태후 역사 그대로=고려 태조 왕건의 손녀이자 성종의 누이인 천추태후를 역사적으로 조망했다. 음탕하고 악랄한 여자로 묘사된 천추태후, 그녀의 치적과 삶을 꼼꼼한 사료조사와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로잡는다. 최근 방영되는 동명 드라마의 과장과 왜곡도 책을 통해 비교해 볼 수 있다. <푸른역사> 1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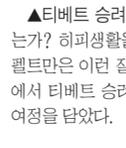
▲현대정치와 길과 속 =강준만 교수의 한국 정치 비평서. 추상적인 정치이론 대신 우리 사회가 왜 '정치 과잉'의 사회가 되었는지, 유권자는 왜 지도자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는지, 대입시험이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10가지 주제에 따라 한국정치의 면면을 날카롭게 들여다본다. <인물과사상사> 1만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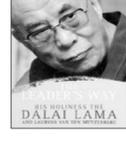
▲감언이설=중국 모판 문화상 수상자 리얼의 대표작인 장편소설. 항일전쟁에서 죽었다고 알려진 인물이 실은 오지 파랑산에 숨어 지냈다는 행적들이 시간차를 두고 의사, 수감자, 법학자 등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면서 재미를 더한다. <문학과 지성사> 1만5천원



▲그때 그 길이 왜 그리 좁았단고=한국 최초 여류 서양화가 나혜석, 일찍이 집을 나간 어머니 탓에 그의 아들 김진은 가슴속에 화를 키우며 자랐다. 하지만 아들이 보고 싶어 몸부림치다 끝내 행려병자로 삶을 마감한 어머니의 소식에 김진은 미움의 싹을 자른다. 굴곡지고 평한 나혜석의 가족사를 아들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있다. <해누리> 1만원



▲티베트 승려가 된 히피의사=왜 우리는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는가? 히피생활을 즐기던 오스트레일리아의 젊은 의사 에이드리언 켈트만은 이런 질문에 매달리다가 티베트 승려가 되었다. 히피의사에서 티베트 승려가 되기까지 그의 회의와 방황, 불교에 귀의 등의 여정을 담았다. <호미> 1만1천원



▲리더스 웨이=티베트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경영 컨설턴트 마우렌베르흐가 새 시대를 이끌어 갈 리더의 자질과 역할에 대해 10년간 나누어 이야기한 모은 책. 기업의 리더가 자신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조직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그리고 서로 연결된 세계에서 리더는 어떤 리더십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라는 세 가지 주제로 이뤄져 있다. <문학동네> 1만3천원

### 국민공인중개사

☎ 011-635-7939, 010-2810-6103  
(공시지가 이하 및 급 매물 중개 전문)

공시지가2억매매가1억2천만원

- ▶ 상업지역 130P 삼각동
- ▶ 공시지가+건물과표13억매매가7억5천
- ▶ 45m도로 접 목욕탕 및 복합상가+주거복구 대 220p 건 400P
- ▶ 분양가8억아파트1300세대상가매매가2억5천
- ▶ 35m도로 접 1층 상가 건물 약 100p 땅 지분 93p 한의원 내과 적합
- ▶ 공시지가+건물과표6억매매가3억5천
- ▶ 현재 한의원 경영 중 대 130p 건 230p 상업지역
- ▶ 공시지가+건물과표7억매매가4억2천
- ▶ 대 100p 건 300P 상업지역
- ▶ 상업지역약95p공시지가3억5천매매가2억4천
- ▶ 30m 도로 접
- ▶ 강정가3억8천매매가2억
- ▶ 장성 대 270p 건 180p
- ▶ 1층 점포 6칸 별도 주택 2동
- ▶ 2층 사무실
- ▶ 32억 빌딩급매
- ▶ 대 200p 건 450p
- ▶ 보 8억 월 2350만원 월 13억포함
- ▶ 강정가46억매매가24억
- ▶ 빌딩급매 대지500p건평1000p 지하1층, 지상5층 전세공실
- ▶ 화순주유소급매
- ▶ 대 600p 세차시설 카센터 주유기 12대
- ▶ 매 12억 용자 6억포함
- ▶ 화순, 절터, 요양원, 필장부지
- ▶ 9500p 현재 활동상 창고관리실
- ▶ 주택조경수 식재 딱 4억5천
- ▶ 장성 임야사슴목장, 필장
- ▶ 100000p 4억7천

☎ 공시지가 이하 급 매물 접수 환영

### 대승공인중개사

☎ 062)954-7700, 010-9468-7959

### 수원 지구

#### 아파트 매매·임대전문

#### 건축상담

토지구매

- ▶ 용산구 신가동 2738㎡ 대면매매 대가 28억
- ▶ 용산구 문수동 4145㎡ 매가 8억
- ▶ 수원지구 333-1(평의변경가능) 80㎡
- ▶ 주차정안역 720㎡ 3.3만당 600만원
- ▶ 수원지구 아파트 빌딩지역 정문 입구
- ▶ 상업용지 500㎡ 210만
- ▶ 수원지구 단일주택 170세대 정문 앞
- ▶ 주차역지 330㎡ 3.3만당 450만원

노블메디컬센터 임대분양

- ▶ 수원지구 중심상권
-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5,000㎡
- 1층 : 약국, 전시장, 안경점, 부동산, 이동통신업
- 2~5층 : 병원(내과, 소아과, 안과, 피부과)이비인후과 등 임대중점수 대량
- 원내 지하주차장 및 원외 주차장 설치로 주차공간 100% 확보
- ※ 1층 파외마케팅 임점확정
- 6~8층 : 치과병원(임플란트전문) 개인 확장

○ 수원지구 용지매매 및 개발상담 ○

### 대표: 설봉규 (영안등록번호: 16-07-29)

전 호남대학교 총장(대통령 상무위원) / 전 호남대학교 총장(대통령 상무위원) / 전 호남대학교 총장(대통령 상무위원) / 전 호남대학교 총장(대통령 상무위원)

### 부동산 전문 상담

지역/소재지/면적/토지(건물)㎡/평/매입/감가/매각/세율

지역	소재지	면적	토지(건물)㎡	평/매입	감가	매각	세율
서울	영등포구	488	175/285	4/7	22만대	1만5천대	11%
경기	안양시	488	302/131	3/3	69만대	3972만대	11%
경기	안양시	488	281/497	3/19	49만대	2982만대	11%
경기	안양시	488	423/678	3/4	59만대	3982만대	11%

### 부동산 전문 상담

지역/소재지/면적/토지(건물)㎡/평/매입/감가/매각/세율

지역	소재지	면적	토지(건물)㎡	평/매입	감가	매각	세율
경기	안양시	488	79/85	4/7	84만대	33만대	11%
경기	안양시	488	387/94	4/9	84만대	69만대	11%
경기	안양시	488	295/297	3/17	198만대	198만대	11%
경기	안양시	488	142/164	2/26	39만대	198만대	11%
경기	안양시	488	118/91	3/5	68만대	48만대	11%

### 부동산 전문 상담

지역/소재지/면적/토지(건물)㎡/평/매입/감가/매각/세율

지역	소재지	면적	토지(건물)㎡	평/매입	감가	매각	세율
경기	안양시	488	31/58	3/18	89	59만대	11%
경기	안양시	488	34/58	3/18	89	59만대	11%
경기	안양시	488	47/54	3/11	115	65만대	11%
경기	안양시	488	42/53	3/13	294	198만대	11%
경기	안양시	488	39/81	3/17	192	62만대	11%
경기	안양시	488	54/84	3/4	294	198만대	11%
경기	안양시	488	46/69	3/18	198	198만대	11%
경기	안양시	488	61/51	3/13	99	198만대	11%
경기	안양시	488	50/84	3/5	198	198만대	11%
경기	안양시	488	24/59	3/13	78	59만대	11%
경기	안양시	488	67/53	3/14	198	198만대	11%
경기	안양시	488	48/84	3/4	198	198만대	11%

### 부동산 전문 상담

지역/소재지/면적/토지(건물)㎡/평/매입/감가/매각/세율

지역	소재지	면적	토지(건물)㎡	평/매입	감가	매각	세율
경기	안양시	488	488	3/4	295	198만대	11%
경기	안양시	488	1064	3/6	594	59만대	11%

☎ 062)225-2685 H.P:011-605-7777 \*광주 전권 경매 전문

###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383-5221 ☎011-609-5221 (구 상무대 점문)

### ▶빌딩(임대용, 투자용)

- ▶ 상무지구 토지120평 건물554평 보증금 2억/월세2000만원-매가32억
- ▶ 토지200평 건물 725평 보증금 37억/월세1,700만원-매가32억
- ▶ 토지600평 건물1,300평 보증금 37억/월세3,000만원 용사 12억 매가 78억
- ▶ 토지300평 건물 970평 매가68억
- ▶ 현용 5억으로 사무나 헬스클럽 운영하실 분

### ▶토지(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회사사육 및 병의 학원부지 등))

- ▶ 2,800㎡(850평) - 매가 1,300만원
- ▶ 727㎡(220평) - 평당 1,200만원
- ▶ 450㎡(138평) - 평당 850만원
- ▶ 833㎡(250평) - 평당 1,250만원
- ▶ 611㎡(185평) - 평당 680만원

### ▶기타용도

- ▶ (농지) 그랑빌드 73,000㎡(2만2천 평) 평당 9만원 (중산층)
- ▶ (장동) 주거지역 3,760㎡(1,140 평) 평당 40만
- ▶ (전원주택지) 화순서성리 전원주택지 분양 평당 65만원 (18세대 동호인 주택으로 적합)

### 상무지구 사무실 임대(신축)

위 치: 상무지구 동서동 3번 길목(중심) - 금동빌딩, 백화점, 편의점,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받아드리겠습니다.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 번영 공인중개사

# 모텔

### 전문업종 신축모텔, 구모텔 무인모텔, 사우나 고시텔, 원룸 독서실, 펜션 전문컨설팅

### 부지, 설계, 허가 시공, 건설, 리모델링 시설, 비품, 영업상담

### 임대물건, 임차인 매도물건, 매수인

★24시간접수상담★

☎(대) 062)531-4665 상 담 062)515-0030 동림2지구동림병원앞

### 대인동심일부동산

☎(대)225-1146, 5218 ☎011-602-2532 (용주역점 신촌점, 대인동 상사점(대인))

###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울 켈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남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원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 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